



제 391 호 2015년 3월 11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log.naver.com/cityansan twitter.com/ansancityhall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안산의 3.1운동	04면	생태·환경	09면	문화·예술	10면	안산사람
수암동에 나부낀 태극기의 물결, ‘3.1만세 운동길’을 걷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의 새 식구, 야생 염소새끼 3마리 태어나		안산경찰청축구단, 이홍실 감독 영입... 오는 29일 홈경기		‘석기마녀’ 엄마들... ‘지붕 없는 박물관’을 디자인하다	



3.1절 기념 공연으로 제작된 극단 <이유>의 연극 ‘유관순’을 연습하고 있는 배우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수암동에 나부낀 태극기의 물결… ‘3.1만세 운동길’을 걷다

시민 160여명 참여, “안산은 3.1운동의 주요 지역이었다”



3.1만세운동길 탐방에 참여한 시민들 모습

매서운 바람에 눈발까지 날리던 3월 1일 아침, 태극기를 손에 든 안산시민들의 행렬이 수암동 비석거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안산시민 160여명은 3.1만세운동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 수암동 비석거리를 걸으며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가졌다.

1919년 서울에서 삼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무렵 안산에서도 3월 말부터 만세시위가 전개됐는데,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수암 비석거리 만세시위다. 1919년 3월 30일 수암동 만세시위에 참가한 군중들은 경찰 추산 2천여 명으로 기록된다. 정진각 안산학 연구위원은 “그 당시 수암면 전체 인구가 8천여 명이었는데, 남자 4천여 명 중 노인과 어린 아이들을 빼면, 그 당시 이 지역에 살던 남자들은 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안산지역사연구모임에서는 그동안 매년 삼일절마다 수암 비석거리 3.1만세운동길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안산시와 함께 주관하며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안산에서 대규모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내년에는 3.1운동 단체가 함께 모여 이곳에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진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만세운동 시위대의 목적지는 수암경찰서 주재소, 수암면사무소, 안산보통학교(현재 안산초등학교), 안산향교였으며 그 길목에 있던 가장 넓은 거리가 바로 비석거리였다. 비석거리란 이름이 붙은 이유도 이곳에 선정을 베풀었던 관리들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그 공덕비들이 세워져있던 자리에는 작년 8월 ‘비석거리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3.1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비석거리란 지명 자체가 사라진 수암동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주민 인터뷰와 문헌조사에 발 벗고 나섰던 안산지역사연구모임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날 3.1운동 기념비(수암동 498-5)에서 시작된 행사는 안산초등학교, 안산객사, 송덕비군, 향교터로 이어졌다. 참석한 시민들은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만세삼창을 한 후, 정진각 위원장의 해설을 들으며 3.1운동길을 도보로 탐방했다.

비석거리를 지나 안산초등학교 운동장 내 안산초 100주년 기념비에 도착한 후에는 신대광 교사(원일중학교)의 해설이 이어졌다. 먼저 신 교사는 기념비에 기록된 안산초 개교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산초 역사는 1912년 일본인 교장이 부임해 재 개교했던 시점이 아니라 고종황제 소학 교령으로 안산초가 처음 세워졌던 1895년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1만세운동과 연관된 안산초의 의미

에 대해서도 “1919년에 많은 군중들이 당시 안산의 중심지였던 수암면의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만세를 불렀고 이곳도 그 중 하나다. 또한 2천여 명의 시위대 중 이 학교를 나왔던 학생도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그 학생들도 자신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정신들을 심어주는데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1919년 3월 30일 수암동 만세시위, 당시 이 지역에 살던 남자들은 거의 참여

이날 안산초 35회 졸업생인 유천영 안산문화원 초대 원장은 안산초 운동당 교가 기념비 앞에서 “6.25전쟁으로 학교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자료가 모두 유실되어 안산초의 교가가 두 개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구 교가를 2절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불러주기도 했다.

최근에 복원된 안산읍성터 객사에 도착해서는 500여년의 세월을 견뎌낸 커다란 나무를 바라보며 무형문화재 9호 박기형 선생의 대금연주를 함께 듣기도 했다. 연주자의 손이 열고, 대금도 제 소리를 낼 수 없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실리는 음물에 연주자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 고즈넉한 향취를 더했다.

원래 비석거리에 있었던 송덕비들은 안산읍성 동문지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었다. 현재 5개 남은 송덕비는 안산에서 임무를 마치고 간 군수들 중 행적이 좋았다고 평가받은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선정비였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모양이 흉물스럽게 변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거리를 전전하다 현재는 읍성 관아터 근처로 옮겨오게

되었다. 정진각 위원장은 “이 비석들 중 하나는 누군가 개천에 갖다 버린 것을 이현덕 선생께서 주위 마당에 보관하던 것을 다시 복원해 놓은 것”이라며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올해 삼일절 행사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주최측이 준비한 태극기가 모자랄 정도였다. 초등학교생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참가했는데, 작년과 비교해 특히 올해는 청소년과 주부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날 도보탐방 선두에 서서 친구와 함께 해설을 주의 깊게 듣던 천예함 학생(고2)은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기념비 위치를 잘 몰라서 파출소에 물어봤는데 ‘그냥 그쪽에 있을 거야’라며 제대로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그냥 책으로만 딱딱하게 공부하면 기억을 오래 못하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라고 했다.

아이 셋과 행사에 끝까지 함께 했던 서민원 씨(사동)는 “수암동은 그냥 수암봉을 오를 때 거치는 길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안산의 중심지였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기했다”고 말했다.

신대광 교사는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10년간 조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민지배에 잘 적응하고 동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3.1운동이 터지면서 패닉상태에 빠졌었다”며, “우리가 지금 이곳을 찾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감방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우리 선조들이 말하고 싶었던 정신들을 지금 우리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미니 인터뷰

신대광 원일중학교 수석교사 “교육의 도시, 안산… 3.1운동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신대광 교사는 현재 원일중학교에 재직하며 안산학 연구위원, 안산향토사연구소 부소장과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역사학자다. 「청소년을 위한 안산 역사이야기」, 「일제강점기 안산의 교육」 등 다수의 도서를 출간했다.

안산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대광 교사를 만나 안산 지역의 3.1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Q 최근 출간한 「일제 강점기 안산의 교육」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안산은 ‘교육의 도시’라 할 만큼 교육열(教育熱)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조선시대에 여러 마을에 서당이 있어 아동을 교육했으며, 1895년 ‘소학교령(小學校令)’에 의해 1899년 안산 최초의 근대 학교를 군수가 직접 세우게 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발표되고 나서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 여러 지역에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브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문맹퇴치운동, 최용신 선생의 샘골학원, 보통학교 학년연장운동 등 지역의 많은 분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모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교육 정신이 오늘날에 이어져 우리가 안산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되었어요.

Q 96년 전, 안산 지역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만세를 외쳤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1919년 서울에서 봉기한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안산지역에서도 3월 말부터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안산은 당시 행정구역상 시흥·부천·수원군에 속했는데, 이 지역은 당시 경기도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중 가장 많은 횃수의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입니다.

1919년 3월 30일 오전 10시 시흥군 수암면 비석거리(碑立洞)에는 18개 리(里)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주민이 윤병소(尹秉昭), 유익수(柳益秀), 홍순칠(洪淳七), 윤동욱(尹東旭), 김병권(金秉權) 등의 주도로 만세 시위를 벌였어요.

수암 비석거리 만세시위는 2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시위였습니다. 그 당시 수암면에는 1,592가구에 8,12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남자가 4,112명이었습니다. 2천여 명의 군중이라는 기록 숫자는 남자인구 가운데 노인과 아동을 제외하고 수암면 주민이 거의 다 참석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비석거리 만세 시위를 시작으로 안산의 여러 지역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됩니다. 이튿날 수원군 반월면에서 만세시위



원일중학교 수석교사실에서 신대광 교사와 안산 지역의 3.1운동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장면

가 일어났고, 부천군 대부면에서도 김윤규(金允圭), 노병상(盧秉相), 홍원표(洪元杓) 등이 만세 시위를 벌였으며, 4월 4일 시흥군 군자면에서는 강은식(姜殷植), 김천복(金千福) 등이 주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편 권희(權禧) 등이 군자면 내의 구(舊) 시장터에서 시위를 모의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됐어요.

Q ‘비석거리’와 ‘3.1운동 공덕비’, ‘3.1운동 기념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A 앞에서 언급했듯 안산의 3.1운동은 수암 비석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의 자리는 현 기념비에서 서북방향으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념비가 있는 곳에는 경기관찰사, 안산군수 공덕비 5기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관아터에서 동북방향으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지역사연구모임에서는 공덕비가 있던 곳에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어요.

안산의 3.1운동은 비석거리에서 시작되어 ‘비석거리 만세시위’라고 합니다. 그곳은 안산에서 처음 시작된 만세운동의 현장이고, 경기도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난 곳으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아울러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정신을 물려주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공덕비를 옮겨버리면 ‘비석거리 만세시위’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기념비라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3.1운동이 일어난 지 95년

만인 작년 8월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Q ‘안산지역사 연구모임(이하 안지모)’이 매년 삼일절 기념식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모 회원으로서, 안산 시민으로서 3.1운동에 대해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고, 일제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가 계승해야 하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10여년 전부터 안산지역사연구모임에서는 매년 3월 1일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갖고, 유적지를 답사하며 3.1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삼일절 기념행사에는 안산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만세삼창을 해주어 참 뿌듯했어요. 앞으로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행사를 주관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3.1 정신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안산시를 좋은 도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역사를 찾고, 문화를 향유하며 후손에게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 안산에 살면서 우리에게 빛나는 전통을 물려주었듯이 우리는 그 전통을 더욱 아름다운 전통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96주년 삼일절 맞아 문화광장에서 다양한 행사

꽃샘추위로 잔뜩 움크렸던 3월 1일, ‘제4회 국경일 지키기 96주년 삼일절 행사’가 열린 안산문화광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오후 2시 난타 공연과 와리 풍물 보존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공식행사가 진행되었다. 평소에는 애국가를 1절만 부르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날만큼은 4절까지 제창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산의 아픔이 큰 탓일까. 장내는 이내 숙연해졌다.

남편과 함께 행사장에 나온 유미숙(고잔동) 씨는 “안산에 그 어느 때보다 아프고 슬픈 일이 많았던 터라 애국가를 부르는데 목이 메었다. 3.1절이 단순히 공휴일이 아닌 소중한 국경일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 ‘이유’가 준비한 연극 ‘유관순’. 관객들은 꽃다운 19살의 나이로 일본군에 당당히 맞서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보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연극 ‘유관순’의 여운이 가시기 전 시민 33인이 만세를 외치며 등장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관객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며 가슴속 뜨거운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진 태극 기공, 난타 ‘크레이지 타’, 벨리댄스, 단무도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추위를 잊게 했다. 행사의 대미는 위안부 소녀상의 등장이었다.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으로 고통 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극단 ‘이유’ 단원들이 재현한 당시의 상황은 그날의 고통을 조금

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위안부 소녀상에 헌화하기 위해 국화꽃을 들고 줄을 선 시민들의 표정에는 숙연함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한 행사는 130여 명이 출연한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조규선 씨(고잔동)는 “요즘은 태극기를 달지 않는 가정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국경일을 잊지 않고 태극기를 다는 작은 행동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날씨가 꽤 쌀쌀했지만 3.1절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단체 신재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로 우리 후손을 일깨우고 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새 식구가 생겼어요

야생 염소새끼 3마리 태어나



한울타리에서 지내고 있는 염소가족이 당근을 먹고 있다.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새 식구가 생겼다. 주인공은 바로 2년 전 시흥시의 의뢰로 갈대습지공원으로 들어온 야생염소가 낳은 새끼 세 마리다. 지난 설날 저녁 늦게 새끼 세 마리를 순산한 염소는 2년 전 처음으로 안산으로 이주한 후 수컷 새끼를 데려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갈대습지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하게 임신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새

끼를 낳기 며칠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설날 자정 혼자서 새끼를 순산한 염소는 뒤처리까지 말끔하게 하고 현재 다섯 식구가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야생염소들을 보기 위해 갈대습지공원을 찾은 3월 1일은 다소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방문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포근

한 날에는 아이들이 먹이를 주며 염소 주변을 가득 메운다고 한다. 간혹 염소가 먹을 만한 채소를 잔뜩 썰어와 자녀들과 함께 먹이를 주는 관람객도 있을 정도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안산시 환경정책과 최종인 씨는 “설날에 하얀 새끼 염소가 세 마리나 태어난 것을 보니 안산시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며 “염소들의 건강을 위해 사료를 주기보다는 볍씨와 풀, 야채를 주 먹이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갈대 등 수생식물을 이용하는 자연정화처리식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국내 최초의 인공습지다. 이 공원은 갈대습지 주변에 서식하는 물고기, 철새 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는 환경생태관과 습지에서 정화된 물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생태연못,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소나무외 45종 6만8천주의 나무와 야생초화류, 계절별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야생화꽃길, 갈대습지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관찰로 등이 조성돼 있다. 특히 관찰로에서는 오리, 해오라기, 장다리 물떼새, 황오리, 중대백로 등 철새 수천 마리와 물고기가 살고 있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의 이용시간은 동절기(11월~2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하절기(3월~10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 문의 : 안산갈대습지공원 (☎ 031-481-3810)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국내 51개 지방정부… 안산에 모이다

호텔 인터불고에서 정기회의,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논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네트워크인 '이클레이(ICLEI). 이클레이 국내 회원 지방정부들의 연례 정기회의가 지난 2월 27일 호텔 인터불고 안산(단원구 성곡동)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6명의 시장, 구청장을 포함하여 국내 51개 회원 지방정부의 국제환경협력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매년 초 회원 지방정부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정기회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한 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각종 유엔회의 및 국제협약 동향과 지방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올해 정기회의에서는 4월로 예정된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서울시가 유치함에 따라, 환경정책분야 추진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들의 사전 준비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유엔(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9월 채택예정”이라며, “이클레이는 그동안 국가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지구적 도전 과제에 지방정부들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세계총회 이클레이 '세계 전략' 발표에 발맞추어 국내 회원 지방정부들이 '한국 전략'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1부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2부 라운드테이블은 '한국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제와 함께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박상욱 오산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의 제안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우수사례 소개로는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 '기업부문 저탄소 환경인증제'와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 협력모델',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오산시 생태하천복원사업', '강동구 1가구 1발전 에너지 프로슈밍 사업' 등이 발표됐다.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이클레이 정기회의

정기회의를 공동 개최한 안산시는 “이클레이 회원인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이클레이 한국 전략의 채택과 향후 이행 과정에 안산시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한국 전략'의 이행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성 평가', '지역 기후행동',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성과 10% 향상 캠페인'의 4개 부문

에 대한 전략과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참가 신청(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관련 NGO, 전문가 등) 및 문의는 이클레이한국사무소(031-255-3257)로 하면 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시화호청소년습지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야외에서 탐조활동을 하는 모습

철새들의 낙원, 시화호로 들어가다

시화호생명지킴이, 청소년대상 습지학교 열어

“제 꿈은 조류학자가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둘러메고 이곳저곳 탐사하며 새를 관찰하고 싶어요”라며 자신의 꿈을 말하는 김보배 양(신길중 2). 김보배 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갈대습지공원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새 따라 그리기’를 하며 ‘뱀새’를 그린 경험이 새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그 외에도 “친구 따라 왔어요”, “봉사시간 채

우려고요”, “야외 활동하는 게 좋아서요”라며 저마다 참여 계기를 말하는 아이들.

지난 2월 28일 환경민간단체인 ‘시화호생명지킴이’는 ‘2015년 제4기 시화호청소년습지학교’를 열고 16명의 청소년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성별과 나이는 다르지만 시화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개별적으

로 하며 결속해 나갈 아이들, 그들이 시화호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첫 만남 이후 1년 동안 매월 1회씩 습지와 시화호, 멸종 위기종, 철새 탐조, 물새 홍보 캠페인, 생태문학캠프, 물새를 모티브로 하는 생활용품만들기,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습지 보호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시화호를 알아가고 홍보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1, 2기에 참여한 후 현재 모니터링 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여진 양(성포고 2)은 “주변에서 쉽게 보기 힘든 철새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갯벌에서 정화활동을 할 때 담배꽂조와 유리조각이 많아서 안타까웠어요”라며 지난 활동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모니터링 반에서 활동하는 8명의 중고등학생들은 환경연극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올해는 생태그림그리기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화호생명지킴이는 1999년부터 환경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초등학교 현장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환경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는 ‘시화호생명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시화호 유역의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개발 등을 실시하는 환경민간단체이다.

1987년 4월부터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조성된 시화호, 당초 바닷물을 빼낸 후 담수호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이었으나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야기되면서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는 해마다 수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철새들의 낙원이 되었다. 텃밭말뚝가리, 큰고니,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갯빛개구리매, 참매,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종과 수많은 철새들의 귀한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안산갈대습지’를 생태보물로 만든다

4월 조례 제정… 소연못 조성 등 생태적 시설물 개선하기로

안산시가 도심 속 습지인 안산갈대습지를 생태보물로 만들어 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안산시는 민선6기를 맞아 환경을 통한 인간의 가치를 창조하는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생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산갈대습지는 시화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됐지만 자연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심 속 생태서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산시는 오는 4월, 습지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일관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습지 내에 소연못을 조성한다. 식생의 주종을 이루

는 갈대 이외에 다양한 수종식물을 식재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소연못은 갈대의 무제한적 번식을 방지하고 다양한 식생을 통해 수질 정화는 물론 어류의 서식지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조류가 찾는 생태보물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유리온실을 재정비해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갈대습지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야생식물 종묘장과 생태계 교란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생생한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생태해설사의 해설프로그램과 습지 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교육을 확대해 체험을 통한 시민들의 생태계 보전의식 확산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외에도 습지 내 테크와 난간 등 낡은 시설물 보수, 잔디·수목 관리, 생태계 보전을 위한 미개방 지역 관리 등 습지 전체의 자연과 환경이 조화로운 생태서식지로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갈대습지를 시작으로 도심 속 습지, 공원, 하천 등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생태계의 회복력 증대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 안산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 (☎ 031-481-2615)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봄꽃으로 색을 만나는 안산

도심 속 봄꽃과 함께 길을 떠나요~

안산시는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청 앞 교통섬, 안산시 진입로, 북고개, 안산IC 등 주요 시가지와 도로변 7개소(1,636㎡)에 아름다운 봄꽃길을 조성한다.

꽃길은 시직영 꽃묘장에서 팬지, 비올라, 데이지 등 15만 본의 봄철 초화류를 직접 재배하여 도심내 주요 도로변과 유희부지 등에 조성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봄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도심 곳곳에 화사한 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꽃길을 보며 봄의 정취를 맛본다면 겨울동안의 추위에 얼어붙은 도시에 생기가 가득할 것이다.

또한,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16교, 화정교, 안산교, 월피보도교 등 주요 교량 및 보도육교에 사계절 꽃이 피는 꽃걸이(웨이브페추니아)를 설치하여 특색 있는 안산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안산을 가꾸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녹지과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담백한 맛 일품…피로회복에도 좋아” 김가네 낙지전문점



지난 호에 이어 ‘2014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에서 ‘최고 맛집(금상)’으로 선정된 바 있는 안산의 대박 맛집을 찾았다. 안산소방서 맞은편 프라임시티빌딩 1층에는 ‘김가네 낙지전문점’이 있다.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60평 남짓 김가네 낙지전문점은 연일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평범해 보이는 낙지전문점이 입소문을 타고 대박 맛집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

낙지는 산뜻하고 담백한 맛과 함께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이다.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말라빠진 소에게 낙지 서너 마리를 먹이면 곧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기록이 나온다. 낙지에는 강장제 성분인 타우린이 34%가량 함유되어 있어 남성의 정력 증강에도 좋다. 또한 다량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에 좋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간장 기능 강화 및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평범한 낙지볶음으로는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2년여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개발한 ‘간장낙지’가 대박 맛집의 첫 번째 비결이다. 어릴 적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장에 낙지를 재워 먹던 것이 떠올라 착안한 김원규 대표만의 메뉴다.

옛 맛을 그대로 살린 소스 개발 등 2년여의 연구 끝에 선

보인 ‘간장낙지’로 김 대표는 ‘2013 전국 해산물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으며, ‘매실청을 이용한 간장낙지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단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간장낙지의 ‘유일한 맛’에 발길을 잇는다.

간장낙지는 매실청과 다양한 야채를 혼합한 간장소스에 데친 낙지를 버무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감칠 맛은 물론 부드럽고 짜지 않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찾는 음식이다.

안산 토박이인 김 대표는 “반농반어를 하던 서해안 지역에서 나고 자라 낙지를 자주 먹었죠. 어려서 먹던 고향의 맛을 살려 낙지전문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색다른 조리법을 찾다가 ‘간장낙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라고 했다.

손님 이대희 씨(46세, 고잔동)는 “건강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다보니 낙지덮밥의 매운맛과 짭맛이 부담스러울 때 김가네 낙지전문점을 찾게 됩니다. 간장 소스가 짜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독특한 맛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왔는데 장모님과 어린 조카들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매일 오이도 어시장을 방문 직접 신선한 낙지

를 사온다. 유통과정을 줄여 싸고 좋은 낙지를 고르기 위해서다. 그러나 수급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전남 고흥에서 낙지를 공급 받기도 한다. 고춧가루와 쌀도 국내산을 고집한다.

김 대표는 “음식 맛도 맛있지만 식당 운영의 묘미는 ‘사람 맛’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가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따라오는 수입으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손님과 관계 맺는 즐거움도 크거든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김 대표의 운영 철학이 대박 맛집의 두 번째 비결인 셈이다.

‘김가네 낙지전문점’에는 간장낙지 외에도 낙지덮밥, 연포탕, 낙지초무침, 낙지탕탕이(낙지를 잘게 자른 음식) 등과 함께 직원들의 친절찬 서비스가 블로거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나른한 봄날, 안산의 ‘최고 맛집’으로 선정된 ‘김가네 낙지전문점’에 들러 맛과 감동으로 대접받는 호사를 누려보는 것도 좋겠다.

• 문의 : 김가네 낙지전문점 ☎ 031-402-0552

• 주소 : 단원구 당곡로 33(고잔동 528-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생활안정자금, 용자신청하세요”

오는 20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안산시가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다.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용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근로 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수급자여야 한다. 단 용자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 무능력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용자가 제한된다.

용자는 세대 당 2,000만 원 이내 전세보증금과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학자금의 세대는 세대 당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 보증인의 재정보증서(재정보증인 자격: 연 10,000원 이상

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보증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보증인 인감증명서는 공통으로 구비해야 한다.

별도로 전세 자금 신청은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사업자금은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1부, 학자금은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 각 1부를 구비해야 한다.

단, 동(洞)기금에서 이미 용자를 받은 경우 상환하지 않으면 재신청이 불가하며, 전세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혹은 새로 이사 갈 경우에만 신청 가능(보증금 증액의 경우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이선희 명예기자 <iamy70@hanmail.net>

취업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안산919 취업광장

일 시 : 2015. 3. 19.(목) 14:00~16:00

장 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민원동 2층)

내 용 : 구인구직 현장면접, 일자리관련 부대행사

준비물 : 이력서, 자기소개서

안산일자리센터
취업상담안내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위치 : 안산시청 민원동 2층
• 전화 : ☎ 031-481-2919

노동과 삶에 대한 그녀들의 담화 세계여성의 날, 세대별 여성의 이야기 풀어내

스스로를 ‘을’중의 ‘을’이라는 여성들이 담담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고군분투하는 30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일자리로 힘겨워하는 40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한 부모 가정으로 세상과 맞장 뜨고 있는 50대, 간병인으로 일하며 그 속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맞보는 60대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3월 8일 (사)안산여성노동자회와 희망나눔공제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힘겹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여성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과 양육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30대 여성은 육아의 상당부분을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메우고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맡기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혼자 감당하는 40대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로 일반 직장엔 취업이 힘든 상황이다. 현재 근무하는 자활센터 동료들과 공동체를 운영하고 싶지만 판로와 임대료가 부담이라고 한다.

갑작스런 남편과의 사별로 한 부모 가정이 된 50대 여성은 일을 하느라 가정살림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사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어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실질적인 서비스였던 터라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70대 이상 치매 노인과 24시간 생활하면서 새벽에 3~4번씩 깨어 환자를 돌



지난 3월 8일 (사)안산여성노동자회와 희망나눔공제회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여성이 질문을 하고 있다.

보는 간병인으로 살아가는 60대 여성은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육체적인 돌봄과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다수의 맞벌이 여성은 직장에서는 퇴근하면 가정에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다. 밀린 집안일과 자녀 돌봄으로 노동은 끝이 없다. 가사노동 시간을 따져보면 맞벌이를 하는 남편은 하루 41분, 외벌이하는 남편은 38분, 그에 반해 여성은 맞벌이와 외벌이에 관계없이 200분에 달한다. 가정에서

의 노동, 일터에서의 노동으로 고단한 삶을 사는 여성들은 말한다. 정직하게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107주년을 맞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을’들의 톡(까놓고) 톡(talk) 톡쇼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세월호를 기억하는 다섯가지 방법



세월호를 기억하는 세번째 방법

작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모른 채 2015년 새해를 맞았는데,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이 오고 꽃이 피면 그 누구보다 올해 봄을 앓게 될 것 같은 분들이 생각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벌써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안산시민으로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세월호 1주년을 맞는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1. ‘금요일엔 돌아오렴’, 책으로 기억하다.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이라는 부제를 달고 지난 1월 창비에서 출판된 ‘금요일엔 돌아오렴’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가족들의 모습과 참사의 기억을 담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이 책은 작가, 인권활동가, 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이 펴냈다. 작가기록단은 지난 9개월 동안 분향소, 팽목항, 광화문 등에서 부모들의 극심한 고통을 숨죽여 지켜보며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인터뷰를 해왔던 김순천 작가는 지난 북 콘서트에서 “우리가 ‘이건 안 될거야’ 포기했던 지점을 부모님들은 뛰어넘었다. 그건 미움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며, “이 책에서 격렬한 고통의 언어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의 수익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 활동에 기부된다.

2. ‘4.16약속지킴이’가 되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는 ‘416약속지킴이’를 찾고 있다. 416약속지킴이의 다짐은 우리 스스로가 기억, 질문, 소식통, 기록, 치유, 길이 되어 세월호 참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자는 것이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 이후 매월 16일을 ‘416데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퍼포먼스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416 약속지킴이’는 안산에서 ‘동행 0416’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행 0416’ 회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최근 2월 16일까지 총 4번의 ‘416데이’를 맞아 중앙역과 상록수역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관련 소식을 나누거나, 세월호 인양을 위한 범국민 서명을 받기도 했다.

3. 세월호기억저장소, 치유공간 ‘이웃’ 등에서 봉사자로 활동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뭔가 작은 힘이라고 보태고 싶다면 모인 시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다. 유가족 엄마들이 오래도록 머무르는 분향소 가족대기실이나 치유공간 ‘이웃’에서는 뜨개질이나 자수, 압화 등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도 볼 수도 있고, 또 식재료를 다듬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봉사로 함께하는 주부들도 만날 수 있다. 분향소 가족대기실 한편에 마련된 ‘엄마의 이야기 공방’을 찾으면 자수로 브로치를 만들거나 노란리본을 만드는 일로 세월

호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일손을 거둘 수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브로치나 노란리본은 국민간담회 참석한 시민들이나 해외 동포들을 위한 선물로 보내진다. 또,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세월호기억저장소에서는 수집한 기록들의 목록들을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봉사자들도 찾고 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070-4401-0416)

4. 국민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을 만나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민간담회는 세월호 관련 대형행사와 달리,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솔직한 생각을 교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적게는 20명, 많게는 70~80명의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찾아가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하는 사람과 청중이 호흡하며 느끼게 되는 감동들이 큰 진폭을 준다. ‘주간 프리시안 뷰’에서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간담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근본에서 변혁하는 일에 각자가 꾸준히 무엇을 해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며 “긴 호흡에서 미래의 운동을 기대하고 그려보는 그런 자리가 바로 간담회”라고 남겼다. 개인이 속한 동아리나 단체 등에서 국민간담회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sewolho416.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5. 세월호 소식, 페이스북과 이메일로 받아보자.

지금은 언론에서 세월호 관련 소식들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지금도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세월호 인양 문제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자주 방문하기 힘들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416가족협의회(facebook.com/416family)와 국민대책회의(facebook.com/sewolho416)를 ‘친구추가’ 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꾸준히 세월호 관련 소식들을 받아 볼 수 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안산에 전해 내려오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설이 지났다. 예로부터 음력을 사용해온 조상들은 음력 설을 쇠야 본격적인 한 해를 시작한다고 생각할 만큼 음력의 날짜에 의미를 두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여기저기 윷놀이 등 세시풍속 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안산에 전해 내려오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며 해마다 농사력에 맞추어 관례(慣例)로 행해지는 전통적 행사. 세시풍속은 음력의 월별 24절기와 명절로 구분되어 있으며 집단적 또는 공통적으로 집집마다 촌락마다 또는 민족적으로 관행(慣行)에 따라 전승되는 의식, 의례행사와 놀이이다.

◀ 자연마을이 유지되는 4곳 마을 세시풍속 전해져

안산지역에 현재까지 전승·향유되고 있는 세시풍속은 전통사회에서처럼 대체로 정월에 집중되고 있다. 자연 마을이 유지되고 있는 단원구 선부2동 대쟁이마을,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 상록구 건전동 윗삼천리마을, 단원구 신길동 능길마을 등의 세시풍속이 조사되어 전해지고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인근의 여러 동을 흡수 또는 편입한 안산시의 특징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4개 마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 선보름 쇄기, 도당제, 우물고사 등 명백 유지

단원구 선부2동 대쟁이마을의 경우 설날과 정월 대보름 사이의 기간을 '선보름 쇄기'라고 하며 이 기간 중에 그나마 전통사회에서의 세시풍속이 향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원구 신길동 능길마을은 반월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서해연안에 위치한 마을로 내륙지역 4개 마을과는 다른 세



안산동 주민들이 윷놀이 하는 모습

시풍속이 보인다. 그러나 능길마을도 농업이 기반된 상태에서 어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다른 지역의 세시풍속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어촌과 관련한 세시풍속이 일부 보이지만 점차 사라지고 있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월공단의 조성으로 연안마을이 내륙마을로 바뀌면서 어촌의 특성을 지닌 세시풍속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전승력이 강한 도당제(동네 사람들이 도당에 모여 그 마을의 수호신에게 복을 비는 곳)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을 제외하고는 삼월 삼짇날의 화전놀이 풍속도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4월에는 마을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대쟁이마을의 예와 같이 점차 새로운 풍속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후마을의 경우 다른 지역의 마을과 달리 우물고사가 강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지금도 마을 우물을 식생활에 사용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마을에 여러 개의 우물이 있는 반면 원후마을은 하나의 우물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 고사를 계속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초복 중시, 잊지 않는 세시절기로 삼아

정초 십이지일의 여러 풍속과 쯤생이별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예상하던 쯤생이별 보기, 귀신날과 같은 풍흥을 점치는 예조금기속신과 관련된 풍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복날에 대해서는 초복을 중요시하고 지금도 잊지 않는 세시절기로 삼고 있다. 또한 칠월 칠석에는 마을 공동으로 우물고사를 지내기도하고 각 가정에서는 개인적으로 고사를 지내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어떤 가정에서는 실제 고사는 지내지 않고 고사에 사용하는 음식만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어 칠월칠석 세시풍속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 척사대회, 널뛰기, 쥐불놀이, 안산둔배미놀이, 와리풍물놀이 등 전승

민속놀이 역시 전승력을 가진 세시명절날 노는 놀이가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다. 근래에는 정초의 윷놀이가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마을에서 개최되고 있다. 그 밖에 설날 정초의 널뛰기, 아이들의 쥐불놀이, 연날리기, 단오 때의 그네뛰기 등이 조사됐으며, 현재 향토민속놀이로 지정되어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는 집단놀이로 안산 둔배미놀이와 와리 풍물놀이가 있다. 이 놀이들은 농사와 연계된 세시 민속놀이로 연행됐던 것인데 지금은 연중행사로 전승되고 있다.

·참고자료 : 안산시사 제5권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춤으로 전 세대가 하나 되는 시간 '위대한 도시' 워크숍 현장을 가다



위대한 도시에 참여한 시민댄서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 다음날 생각이 나. 몸이 익혀야지 동작 생각하면 안 될 거 같아. 음악에 몸을 맡겨야 돼”

평일저녁 찾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하 안산예당)은 평소와 달리 조금 들뜬 분위기다. 음악소리와 박자 맞추는 소리, 웃음소리들이 문밖까지 새 나오고, 아직 추운 날씨인데도 반팔티를 입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생수를 들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안산예당에서는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공연될 대규모 커뮤니티 댄스 작품 '위대한 도시: Le Grand Continental™'의 워크숍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커뮤니티 댄스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렵지 않은 춤을 함께 추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각 개인과 공동체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춤이라고 해도 작품이 공연되는 공간과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작품이 전하고자 하

는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뱅 에말드의 안무로 만들어진 <Le Grand Continental™>은 이미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몬트리올, 멕시코시티 등 약 6만5천 명이 넘는 북미권 도시 관중들을 매료시킨 커뮤니티 댄스 작품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올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통해 소개된다. 길거리에서 춤 공연을 보기만 하던 관객들을 시민댄서로 제작과정에 포함시킨 '위대한 도시'는 2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주2회 10주 동안 진행되는 장기간의 워크숍 대장정에 들어섰다. 현재 160여명의 시민댄서 참가자들이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생부터 60대 어르신들, 고려인들, 중년의 아저씨들까지 세대와 국적, 성별을 초월한 다양한 시민들이 이곳에 모였다.

현대무용의 표현 동작과 라인댄스의 구조가 결합된 춤을 처음 접한 시민 참가자들은 첫날에는 춤동작들을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리듬을 몸에 익혀 자연스럽게 춤을 즐기고 있었다. 실뱅 안무가는 동작 하나하나를 간단한 영

어로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반복하면서도 계속 유머를 잃지 않고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이끌었다. 가끔 실뱅 안무가가 마임동작으로 몸 개그를 할 때면, 동작이 어려워져 굳어졌던 시민댄서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평생학습관에서 전단지를 보고 하루 동안 고민하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과 함께 왔다는 이재희 씨(본오동)는 “다들 너무 즐거워하세요. 기대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끝나고 전국적으로 공연 다니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이번하고 딱 끝내긴 아깝잖아요”라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도저히 61세의 나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고진숙 씨(본오동)는 “어린이부터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같이 하는 게 너무 특별한 경험인 것 같다”고 말한다. 동네 연극동아리에서 전해 듣고 엄마를 졸라서 함께 왔다는 손민경 학생(덕성초5)은 “어렵지만, 재미있고, 연습에 오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평소 뮤지컬 공연에 흥미가 있었던 전우영 학생(중2)은 “지난번에는 안무가 실뱅 할아버지와 진짜 간단한 영어로 짧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통통 튀는 발걸음으로 사라진다.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굶고 워크숍에 달려와 체력이 떨어진다는 윤성우 씨는 “평소 현대무용을 보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사실 워크숍 끝나면 많이 피곤하지만 이런 기회가 제 평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다”며 “특별히 이번 행사는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서 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160여명의 시민댄스단이 함께 만드는 '위대한 도시'의 무대는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폐막식이 열리는 5월 3일, 낮과 밤에 하루 두 번 안산문화광장에서 공연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안산경찰청축구단, 이흥실 감독 영입... 심기일전 시즌 연간회원권과 티켓 북 판매, 오는 29일 홈경기 개막



좌측부터 서동원 코치, 이흥실 감독, 임완섭 코치

안산 경찰청 프로축구단은 2015시즌 개막을 앞두고 연간 회원권을 제작해 티켓링크(ticketlink.co.kr)에서 지난 2월 2일부터 티켓 북을 포함,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15시즌을 맞아 처음으로 제작하게 된 연간회원권은 기존 회원카드형이 아닌 홈 유니폼 레플리카에 바코드를 심어 제작된다. 경기장내 홈 유니폼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유니폼에 연간회원 정보를 코드화해서 새겨 넣은 것으로 연간회

원은 유니폼을 입거나 가지고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성인 기준 8만 원인 연간회원권을 구매하면 홈 레플리카까지 얻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티켓 북은 성인 기준 티켓 20매를 지난 시즌 대비 50% 할인된 가격 5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연간회원권을 구입하는 고객 중에서 선착순 50명에게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의 공식 머플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2014년 안산을 연고지로, 와~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새롭게 출발한 경찰청 프로축구단은 2015시즌을 대비해 이흥실 감독을 새로 영입하고 코칭스텝을 강화했다. 또 새로 들어온 6명의 선수를 비롯해 선수 전원의 등번호를 변경해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았다.

안산 경찰청 프로축구단의 에이스로 2014시즌 후반 골 폭풍을 몰아치며 7골을 기록한 서동현 선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 20으로 등번호를 변경하며 윤준하 선수가 10번을 이어 간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7골을 기록했던 조재철 선수도 17번에서 8번으로 등 번호를 바꿔달고 올 시즌 주전 중앙 미드필더로서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4시즌 11골 4도움으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고정민 선수는 기존 19번에서 11번으로 변경하여 안산경찰청의 날

개를 책임지게 된다. 이재권 선수는 수비수지만 공격적인 활약으로 6골 2도움을 올린 안산의 다양한 공격 루트 핵으로서 이번 시즌부터는 등번호 9번을 달고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기 위해 뛰게 된다.

이흥실 신임 감독은 “이번 선수단 등번호 변경은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느슨해져 있는 마음에 자극을 주기 위함이다. 더욱 열심히 뛰라는 의미에서 변화를 주었다”며 “12번은 경기장을 찾아 주시는 안산시민 몫으로 12번째 선수로 함께 해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흥실 감독은 “2015시즌 안산 경찰청 프로축구단의 첫 홈경기가 중주 험멜 팀을 상대로 오는 29일 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저희 축구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보여주시는 안산시민께 재미있는 경기와 좋은 결과로 보답, 프로축구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 등을 여가생활로 즐기어 건강증진을 바라는 마음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5시즌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 배번 현황]

※배번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1번 전태현, 2번 배승진, 3번 김성현, 4번 신형민, 5번 안재준, 6번 정혁, 7번 이용래, 8번 조재철, 9번 이재권, 10번 윤준하, 11번 고정민, 13번 박세환, 14번 박희도, 15번 박현범, 16번 박종진, 17번 신광훈, 18번 김병석, 19번 김신철, 20번 서동현, 21번 이진형, 22번 유호준, 23번 강종국, 27번 한덕희, 28번 좌준협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극단 ‘이유’, 연극 ‘레이니 데이(Rainy day)’ 무대에 올린다

비오는 날 소방대원의 하룻밤 이야기... 반전이 거듭되는 긴장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는 오는 25일(수)부터 29일(일)까지 5일간 연극 ‘레이니 데이’를 공연한다.

2013년 3월 창단한 극단 <이유>는 안산 공연문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창단공연 ‘해뜨기 70분 전’, ASAC 공연예술제 ‘곰, 청혼’, 제1회 정기공연 ‘자살자’, 2014 ASAC 공연예술제 ‘레이니 데이’, 인권보호 장애인 인형극 ‘권리를 지켜줘’, 2014 ASAC 창작희곡공모 대상작 ‘엄마의 이력서’, 자유학기제 초청 연극 ‘우리 하영이’를 공연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초·중등학교 연극강사 지원 등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 제1회 국경일 지키기 삼일절 행사에 이어 지난 3월 1일에는 제4회 국경일 지키기 삼일절 행사에 참여해 유관순 열사의 3.1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연극 ‘유관순’을 공연했으며, ‘악몽-지울 수 없는 그날의 기억 1940’을 통해 암울했던 시절 위안부 소녀들의 절규를 재현했다.



이번 공연은 2014년 ASAC 공연예술제에서 초연된 연극 ‘레이니 데이’를 새롭게 만들어 다시 무대에 올린다.

연극 ‘레이니 데이’는 비오는 날, 한 소방대원이 찾아가던 유

스호스텔에서 벌어지는 하룻밤의 이야기이다. 반전이 거듭되는 긴장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관객들에게는 진한 여운과 감동을 선사하며 2015년 새봄을 적실 단비 같은 공연이 될 것이다.

안산시민과 청소년, 아동에게는 관람료를 50% 할인해준다.

- 일 시 : 3월 25일(수)~3월 27일(금) 오후 8시 30분/
3월 28일(토) 오후 3시, 7시/3월 29일(일) 오후 3시
-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관람료 : 전석 2만원
- 연 령 : 7세 이상
- 문 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080-481-4000
극단 <이유> 010-3891-6681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석기마녀 회원들 모습

신길동에 가면 석기시대가 보인다 ‘석기마녀’ 엄마들… ‘지붕 없는 박물관’을 디자인하다

신길역사유적공원이 마을에서 역사를 공부하던 엄마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다.

2005년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던 중 신석기 유물 수백점이 발견되면서 조성된 신길동 역사유적공원은 경기 서부지역 석기시대 생활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 받았지만, 한동안 버려진 공간처럼 방치돼 있었다. 신길동에 사는 주민들조차도 대부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른 채 우범지역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낸 것은, 2013년부터 신길셋별작은도서관에서 함께 역사공부를 하던 엄마들의 모임이었다. ‘석기마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마들은 내가 사는 곳의 역사와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신길동 역사유적지의 가치를 인정한 후 가끔 공원에 들러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 민원을 넣기도 했고, 유적공원을 제대로 바뀔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

다. 또 역사체험학습안내자 과정을 통해 유적지 공부를 꾸준히 하며 유적공원에서 작은 음악회도 개최했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신길동 신석기유물의 가치도 재조명했다.

특히 신길마을네트워크란 이름으로 더 많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역사유적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만들어갔다. 총 7강의 마을디자인대학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역사공원의 모습은 석기마녀들을 설레게 했다. 안산시 문화예술과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가능한 예산으로 역사공원의 테마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 에코 뮤지엄’이라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역사유적공원은 주거, 농경, 수렵이라는 3개의 테마로 꾸며져, 전시와 체험 휴식을 겸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신석기시대 주거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뼈대만 있는 움집 내부 모형도 설치하고, 수렵·농경 활동의 이해를 돕는 전시물과

모형도 설치된다. 뼈대공간을 활용한 전시 공간, 발굴 체험장, 둘레길, 그늘막을 이용한 휴식 공간, 전통 디자인의 화장실 등도 설치된다. 이 계획 중 선사 유적터와 농경 테마공간, 종합안내판 3개가 작년에 새로 설치됐다. 석기마녀 회원들은 총 14개의 설치물 중 이제 3개가 설치됐지만, 공원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1기 석기마녀 회장 엄혜령 씨는 “신길동 신석기 유적지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안산의 첫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꺼번에 신석기 주거지 24기가 발견됐는데, 이 숫자는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인 암사동 주거지 30기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숫자”라며 “안산시민이라면 선사시대는 이곳에서 배워도 충분하다. 굳이 암사동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 같다”고 말한다.

석기마녀 활동을 통해 안산의 역사를 처음 접했다는 차은숙 씨는 “저는 사실 이곳 토박이가 아니어서 친구들에게 안산에 산다는 얘기도 잘 안했는데, 안산이 단순히 공업도시가 아니라 유서 깊은 역사가 있던 곳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생기게 되었다”며 “안산에 사는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왜 역사를 가르쳐야만 하는지 알게 됐다”고 전했다.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석기마녀 회원들은 동네 초등학교생 15명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기 회장 유남례 씨는 “박물관에 갈 때면 때론 상주하는 해설사들의 영혼 없는 해설을 들을 때도 있는데, 저희는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엄마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오랜 시간 커리큘럼을 짜, 스토리와 게임을 활용한 역사수업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낸다”라고 말한다. 사진을 보니 실제로 아이들이 석기마녀 교사들이 여기저기서 구해온 나뭇가지들로 석기시대 움막을 제작하는 신기한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엄혜령 씨는 “사실 움집내부를 재현해 놓은 주거 테마공간 모형이 들어와 있어야 아이들이 신석기 움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텐데 이게 가장 늦게 만들어져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공원이 하나하나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좋은 유적지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석기마녀 엄마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 문의 : 신길셋별작은도서관 ☎ 031-492-2707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월드 피플
다문화 속으로

필리핀에서 온 테스 씨의 안산살이 “한국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요. 의식수준도 높고요”



안산시는 전국 제일의 다문화 도시이다. 원곡동 다문화 거리는 언어와 피부색, 문화는 달라도 함께 모여 사는 대표적인 다문화 마을로 자리 잡았고 이색 여행지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어, 태국어 등으로 쓰인 붉은색 노란색의 크고 작은 간판, 상점 앞에 놓인 동남아 과일들, 세계 각국의 음식점이 즐비한 다문화 거리 초입에 자리한 안산이주민센터에서 필리핀 이주 여성 테스 씨(42세, 상록구 이동)를 만나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스물여섯 살이던 2000년 1월에 테스 씨는 남편 이종현 씨(48세)와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얇은 여름옷을 입고 있던 테스 씨는 매서운 추위에 몸을 떨며 앞으로 다가올 한국생활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중 나온 시어머니께서 건네주신 코트와 목도리, 장갑을 끼며 무겁고 갑갑했던 기억에 몸서리치는 그녀는 이제 불혹을 넘긴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결혼하자마자 시부모, 시할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2년간 살다가 2002년 안산에 정착한 테스 씨는 다문화 가족이 많은 안산에서 사는 것이 참 즐겁다고 말한다. YWCA에서 6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고, 안산이주민센터에서 다양한 국적



2014년 여의도에서 열린 ‘핑크리본 마라톤 대회’에서 공연을 하는 테스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

을 가진 이주 여성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한국의 풍습과 문화를 익혔다.

필리핀과 한국의 다른 풍습에 대해 묻자 필리핀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

필리핀에서는 음식과 예복 등 결혼식의 대부분을 남자 쪽에서 준비한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피로연에서 춤을 출 때 하객들은 신랑신부의 옷에 축의금을 옷핀으로 매다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축의금의 꼬리를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리며 서로 길이를 경쟁하기도 한다며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친정 부모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는다.

양력설과 음력설을 쇠는 것도 신기하다며, 1월 1일 새해 첫날과 크리스마스에는 마이온 화산이 있는 고향 생각이 많

이 난다고 했다.

큰 아들 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왕따를 당했을 때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덕분에 중학생이 되어 잘 자라고 있어 다행이라고도 했다.

테스 씨는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아요. 의식 수준도 높고요. 그런 국민성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는 장점도 있지만 한국에서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라며 대한민국의 여느 학부모처럼 안타까워한다.

유치원과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녀는 한국의 부모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2006년부터 필리핀 무용단 ‘벨 오브 더 오리엔트’ 대표로 활동하는 테스 씨는 경기도 지역과 서울, 천안 등을 오가며 각종 다문화 행사에서 댄스 실력을 발휘하며 보람을 찾는다. 대부도 바지락갈국수와 파전을 좋아한다는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이 제가 끓여주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시어머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할 때,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다고 느껴요. 결혼 초기에는 강압적이던 남편이 지금은 공연에도 같이 다녀주고 응원해줘서 행복하다”고 했다.

국제결혼이민자 테스 씨가 안산시민 이혜린으로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 문의 : 안산이주민센터 ☎ 031-492-8785

신선영 명예기자 <wohkhah@hanmail.net>

그림책이 내게로 다가왔다

석수골작은도서관, 그림책으로 그림읽기 강좌 열어



그림책 읽기 강좌에 참가한 시민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그림책’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들의 정서함양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한동안 그림책 읽어주기에 몰두했을 터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책 읽기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는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책을 빌미로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입하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학습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우회적인 시도는 아니었는지 말이다.

지난 2월 27일, 석수골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림책을 펼쳐든 주부 10여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김현숙 독서지도사의 손에 들린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에 고정되었다. 표지에는 한 남자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손에 든 무화과를 먹으려는 순간이 담겨 있다. 참석자들은 그림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남자의 성격이 섬세해 보여요”, “까다로운 사람 같아요”, “무화과가 굉장히 달콤할 것 같아요” 등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쏟아냈다. 흔히 제목을 쓱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펼쳐드는 그림책이 아니라, “오감을 동원

해 그림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일은 호기심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강사의 설명은 그동안 그림에 대해 글의 이해를 돕는 보조수단으로만 이해했던 대부분의 어른들에게 새로운 해석으로 다가왔다.

글을 읽고 내용을 단숨에 파악하기 전에 그림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느리게 읽기가 필요하다. 하나의 그림이 백 개의 그림이 되기도 한다. 각자가 지닌 내면의 풍경으로 만나는 그림은 더 이상 같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책 읽기에 흠뻑 빠진 참석자들은 “아이에게 읽어줄 때는 몰랐던 그림이 지금은 눈에 들어온다”, “그림책은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거라는 말에 동감한다”, “오랜만에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등 소감을 밝혔다.

‘무화과’를 먹고 꿈을 꾸면 꿈꾼 그대로 현실이 된다. 주인공 ‘비보’씨는 자신의 원하는 꿈을 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연습한대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만약 ‘무화과’가 있다면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참석자들 마음속에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무화과’를 어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이 달엔 어떤 책을 읽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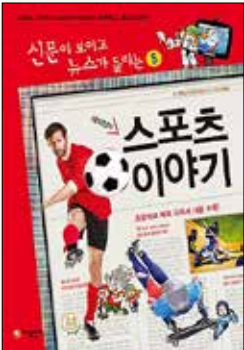
중앙도서관 추천도서

프랑스 시인이자 사상가 ‘폴 발레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몸이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생각처럼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나쁜 몸이다.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을 읽으며 겨우내 움츠려든 몸과 마음을 활짝 펴보자.

아동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기영노 / 가나출판사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의 다섯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스포츠 평론가인 저자가 스포츠 기자시절부터 모은 수많은 취재 정보와 사진으로 만든 살아있는 스포츠 책이다. 스포츠는 경기 방법이나 용어, 스포츠 스타를 알면 더 재미있게 보고 즐길 수 있다.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의 역사, 골프부터 종합 격투기에 이르기까지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과 스포츠 스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청소년

스포츠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21세기교육연구회 / 테이크원



아이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접어둔 채 공부만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진로 교육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 재능을 발굴하고 싶어 하는 부모를 위한 새로운 교육서다.

할 줄 모르는 것을 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감정들과 맞닥뜨려야 하며 비로소 하나를 마스터했을 때 아이들은 성장한다. 성공과

실패의 반복을 경험한 과정은 그대로 공부하는 데 근성이 되고 앞으로의 삶에 적용된다는 스포츠의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 스포츠 교육에 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인

야구장에 출근하는 남자

정우영 / 한스미디어



스포츠 전문 케이블 MBC스포트플러스 채널에서 국내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 중계를 맡고 있는 10년 차 스포츠 캐스터 정우영이 전국의 야구장을 다니며 경험한 소소한 일상의 기록과 야구장 주변 맛집 소개 등을 한데 엮은 책이다.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숨겨진 조

연인 스포츠 캐스터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중계방송 전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시청자들에게 좀 더 새로운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스포츠 중계 캐스터의 다양한 일상을 알려준다.

•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 031-481-386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감골도서관, ‘하루 10분 독서운동’ 추진한다

감골도서관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독서운동 ‘하루 10분 독서운동’을 2011년부터 5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하루 10분 독서운동’은 ‘책 읽는 안산,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1,627명의 시민과 공직자가 참여했고, 그중 우수참여자 12명이 안산시장상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골도서관은 ‘하루 10분, 1년 12

권’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생활 전반에 독서를 장려하고 단체도서대출, 하루 10분 관련 강좌 개설 등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추천도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10분 독서운동은 3인 이상 독서모임, 기관, 단체, 개인 참여가 가능하며 4월 30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iansan.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도서 포트폴리오의 참여 실적과 독서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열리는 ‘제5회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축제’에서 우수참여자 5명과 우수참여단체 5개 팀에 대해 상상을 할 예정이다.

혼자만 읽기 아까웠던 도서를 도서관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을 통해 추천해주면 감골도서관 연령별 도서목록

과 함께 연 3회 도서를 제공한다. 추천도서목록 외에도 자유롭게 도서를 선택해 읽은 뒤 도서포트폴리오를 3건 이상 작성, 제출하는 개인에게는 1회당 10권까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루 1,440분 중 독서에 할애하는 10분은 극히 미미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책을 통해 느낀 즐거움과 기쁨을 글로 표현하는 작은 실천은 큰 변화를 만든다.

하루 10분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함께 경험해보기를...

• 문의 : 감골도서관 ☎ 031-481-2668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함께하니 외롭지 않아요” 안산시, 카네이션 하우스 개소



카네이션 하우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점심시간, 모곡경로당 2층에서는 점시에 따끈한 밥과 갖가지 나물을 올려놓고 10여명의 어르신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어가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다.

안산시가 지난 2월 23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문을 연 ‘안산시 카네이션 하우스’ 풍경이다. 카네이션 하우스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조 변경을 하며 어르신을 맞을 준비를 해왔으며 단원구노인복지관이 안산시로부터 수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전미순 사회복지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카네이션 하우스에 오셨을 때 말로만 하는 인사 대신 안아드리며 인사를 했어요. 처음엔 쑥스러워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먼저 팔을 벌리며 다가오세요”라고 말했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다보면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특유의 너그름으로 먼저 이해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카네이션 하우스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경까지 함께 생활을 한다. 식사준비는 당번제로 하고 설거지는 돌아가며 하시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팔을 걷어부치고 돕는다. 부업거리가 있는 날에는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 민요, 요가, 수준별 한글교실, 생활체조 등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 수세미를 뜨기도

한다. 이렇게 뜬 수세미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되며, 어르신 스스로 구상한 것이라 한다.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한잔씩 손에 든 어르신들은 “집에서 혼자 있으면 밥 먹기도 귀찮고 맛도 모르는데 여기서 함께 먹으니 맛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웃을 일도 많고 재미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잠간의 휴식 시간이 끝나자 곧바로 부업을 하러 방으로 들어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능력껏 부지런히 손을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입은 부식거리를 구입하는 데 보태진다.

카네이션 하우스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거나, 홀로 사는 어르신인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25명 정원에 현재 11명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일반 경로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담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자 떨어져 지내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한 여가 생활을 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카네이션 하우스가 정이 있고 온기가 있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봄날의 불청객 황사·미세먼지 황소바람보다 무섭다



매년 겨울 끝자락에서 이른 봄에 이르는 3, 4월이 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타클라마칸·오르도스·고비사막의 누런 모래가 강한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것이다. 황사는 우리 몸에 해로운 중금속인 카드뮴·납·석영·알루미늄 등을 함유한 흙먼지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은 물론 성인에게도 해를 끼친다. 신생아의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호흡기나 폐 질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며, 피부·안구·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킨다.

중국 내륙지방에서 발생해 한반도에 상륙하는 황사를 우리의 힘만으로 지금 바로 막을 수는 없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 최대한 피해를 줄여보자.

*황사안전수칙

1. 황사가 심한 날은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다.
2. 실내에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잘 닫는다.
3. 외출할 때에는 보호안경·황사전문마스크·모자 등을 꼭 착용한다.
4. 노출되는 피부를 줄이도록 긴소매 옷을 입는다.
5.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한다.
6. 외출 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몸의 먼지를 잘 털어준다.
7.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눈과 코의 먼지를 식염수로 씻어낸다.
8. 실내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9. 황사주의보가 해제되면 실내공기를 바꿔 들인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봄철 자외선 주의하세요 우리 몸에 활력 주지만 피부 손상도 일으켜

따사로운 봄 햇살은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열게 해주고 우리 몸에 활력을 주지만, 자외선 농도 또한 강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별엔 떠느리, 가을별엔 팔 내보낸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봄별은 일사량이 많고 자외선이 강해, 겨울동안 약해진 피부가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강한 자외선은 기미·주근깨를 비롯해 피부암의 원인이 되고, 또 눈동자 색을 바래게 해서 백내장 등 안구질환을 생기게 한다.

그렇지만 모든 햇빛이 무조건 우리 몸에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태양빛이 차단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햇빛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는 비타민 D의 생성을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 피부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또한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중요한 것은 우리 피부를 그을리게 하고, 질환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을 피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햇빛이 강한 날 뿐만 아니라 구름이 낀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외출을 피해,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 자외선 침투를 최대한 막는 것도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한 방법이 된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자동차 배기가스 줄여 대기 환경 개선하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등 소요 비용 지원

안산시는 오는 12월까지 특정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안 된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시 의무운행기간 2년으로 이 기간 내에 장치탈거는 불가하며, 의무운행기간 내에 수출 및 폐차하는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차등 회수하게 된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특정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배출가스검사 부적합 차량)과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받은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차량에 부착 가능한 장치를 소유한 업체를 확인, 부착 후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아래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된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내에 있는 차량, 보조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은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접수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 (☎ 031-481-2247)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경력단절 여성, 다시 취업의 문을 열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적성검사부터 직업훈련, 취업지원까지



결혼 후에 다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육아가 걸리고, 재취업을 원하지만 경력이 단절되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자신도 없고 막막한 여성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지원하고 안산 YWCA가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이다. 구직 여성을 위한 진로상담과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극대화시키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에 필요한 복지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곳이다. 최근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봄학기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먼저 새일찾기 집단상담 과정은 구직활동에 앞서 자신의 강점과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프

로그램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4시간 총 20시간으로 이뤄진 이 프로그램은 MBTI 검사와 직업성향도 검사로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취업 이미지메이킹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우고 취업계획 수립을 하며 구체적인 취업 준비과정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은 한 달에 두 번 개강되며, 무료로 진행된다.

올해 센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강좌는 원단검사 기능인력 양성과정이다. 이 훈련과정은 지역사회에 있는 업체들에서 원단검사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해 취업수요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훈련은 컴퓨터기초교육과 원단의 이해, 검사요령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 후, 협약된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견학과 실습도 실시하게 된다.

진로직업큐레이트 강좌도 센터에서 인기가 많다. 직업세계탐색, 학과정보, 직업적성검사, 진로탐색, 현장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으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요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수요가 생기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들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훈련받은 참가자들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이 강좌는 3월 24일 개강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하루 4시간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아동요리지도사 과정도 학교나 창업 쪽으로 연결될 수 있

는 가능성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강좌 중 하나다. 교육내용으로는 식품학 및 영양학, 조리과학 교육, 편식지도 및 교정프로그램, 파워포인트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과학과 연결된 조리 수업을 연계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동 요리쪽으로 창업을 하기도 하며, 지역아동센터에서 특기 적성교육으로 강사를 구하기도 한다. 이 과정은 4월 24일에 개강하며, 주5일 하루 4시간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통합체험학습지도사는 초등교과 과정 한국사를 중심으로 생태, 과학분야를 아우르는 지도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동아리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스쿨 일영사 등과 회사협약을 통해 자리가 있을 때, 체험활동지도사로 활동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 강좌는 5월 6일 개강되며 주5일 하루 4시간, 총 10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송선희 교육지원 팀장은 “센터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교육과정에 참여해,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종까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 <http://www.ansanwomen.or.kr>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전입·전출 시 수도요금, “사이버창구에서 간편하게”

안산상하수도사업소, 이사 정산시스템 구축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 이사정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사이버창구(waterpay.iansan.net)를 운영한다.

수도요금은 전입, 전출 시 요금으로 인한 세대 간 사소한 시비나 정산 요금 미납에 의한 체납이 발생하는 등 요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창구를 통해 이사 당일까지의 사용 요금

을 즉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사요금 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납요금(당월분, 체납분)과 이사정산요금(최종 검침일로부터 이사시점까지)을 일괄 납부해야 한다. 당월분 요금 자료는 요금이 확정되는 10일경에 조회된다.

또한 사이버 창구를 통해 최근 검침현황, 감면내역, 월별 사용량 추이 그래프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물론 명의

변경 신청도 할 수 있다.

전홍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난 1월 상하수도요금 간단e납부 서비스에 이어 실시간 이사정산 서비스를 운영해 수용가의 편의를 돕고 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여 수용가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봄, 우리 이웃의 작품을 만나다!

단원미술관에 가면 서양화·수채화작품 감상할 수 있어



‘삼시세끼’ 김세현



‘가을의 향취’ 문경옥

그림을 취미로 시작해 동아리를 결성하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두 동아리의 작품전이 단원전시관에서 열린다.

경기미술모두전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경기미술모두회는 2010년 창립전을 열고 올해 여섯 번째 열리는 전시로 13명의 서양화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미술모두회는 ‘재능 나눔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전시를 하기도

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2011년 정기전시회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3층 휴게실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뒤를 이어 상록수보건소와 상록구청에서도 전시했다.

박정숙 회원은 “정기 전시와 나눔 프로젝트 순회 전시를 통해 회원들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게 되어 다들 만족하고 있다. 시간에 쫓겨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오가며 볼 일 보는 도중이라든지, 도서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관심 있게 보고 방명록에 글도 남기

는 것을 보며, 회원 모두 그림 그리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더욱 열심히 작품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10명으로 시작한 모임은 회원이 18명으로 늘었고 그동안 각각의 재능을 발휘하며 개인전과 많은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도 했다.

또한 미량수채화전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3월 창립전을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전시다. 이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연필과 붓을 잡았던 시절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수채화의 매력에 빠져 그림에 대한 열정을 지켜왔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정기전 외 상록거리문화축제와 상록구청에서 전시를 열기도 했다.

미량수채화를 이끌고 있는 신경숙 씨는 “회원들 각자 바쁜 일상 가운데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고, 이번 전시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 수채화를 좋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것을 계기로 아마 추어작가로, 멀리 수채화 전문가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량수채화 회원들은 국내 우수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으며 안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활동해 오고 있다.

• 경기미술모두전(3월 17일~3월 22일 / 단원미술관 제2관)
• 미량수채화전(3월 24일~3월 29일 / 단원미술관 제2관)
• 문의 : 단원미술관 ☎ 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 <iamy070@hanmail.net>

노적봉 인공폭포 재조성 위한 사전 점검 실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인천·광명 방문 인공폭포 벤치마킹



지난 2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노적봉 인공폭포 재 조성 사업에 따른 타 지자체 폭포를 둘러보고 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최근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적봉 인공 폭포 재조성 사업을 위해 인근 도시의 인공폭포를 벤치마킹했다.

지난 2월 26일 안산시 관계자들과 상록구 성포동 노적봉 인공폭포와 인천광역시 수봉폭포, 광명시 스피돔 폭포를 잇따라 방문해 인공폭포의 조성 실태를 파악하고 노적봉폭포

의 재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확인결과 인천 수봉공원폭포는 폭포 뒷공간까지 속채움 작업이 이뤄져 있었고, 광명 스피돔 폭포도 웅벽을 타설해 암석 구조물을 지지하는 공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과 내구성 면에서 노적봉폭포와 차이점을 드러냈다.

현장을 둘러 본 위원들은 철골에 GRC(콘크리트에 유리 섬유 등을 혼합한 복합재료)를 덧씌우는 인조암 시설 공법 뿐만 아니라 자연석을 이용해 폭포를 조성하는 방안도 시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은 “노적봉폭포가 설치된 2004년보다 현재는 인공폭포 조성 기술이 한층 발전된 만큼 안정성이 담보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폭포 재 조성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시가 긴밀하게 협조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적봉 인공폭포는 지난 2004년 조성됐으나 장기간의 낙차(落差)로 인한 충격으로 시설물 표면에 균열과 함몰 현상이 발견됐다. 이에 시는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올 1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진압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세월호 인양, 진실규명에 힘을 보탭니다”

안산시의회 세월호특위, 유가족과 함께 걸으며 ‘동참’



세월호 대책 특위 위원들이 진도군청에서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진도군청에 도착한 안산시의회 세월호 대책 특위 위원들은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도보행진에 동참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진도군청에 도착해 팽목항에 이르는 도보행진의 마지막 구간을 유가족과 함께 걸으며 격려했다.

이날 행진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돼 지난달 26일 시작된 도보행진의 마지막 일정으로 유가족 200여명과 안산시장,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1,500여명이 참가했다.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23km 구간을 함께 걸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세월호 특위위원장은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진실 규명을 위해 지난 20일 동안 진행된 도보 행진의 마지막 여정에 세월호 대책 특위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동참했다”며 “이번 도보행진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치유로 향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안산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3월 10일부터 4일간 개최

안산시의회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18회 임시회를 3월 10일부터 4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의사일정과 대상 안건 등을 확정했다.

의회는 이날 제2상임위원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 7명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물놀이행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5건을 다루기로 하고 회의록 서명위원으로는 김동수 의원과 전준호 의원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의원들과 시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3월 중 의원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상임위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교섭단체 예산지원 및 회의록 공개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Q&A

Q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이 가능한 시간대를 알고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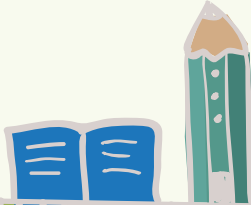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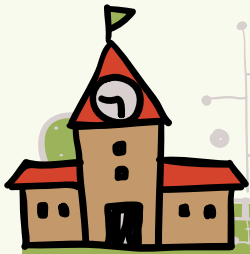
A 단원보건소 홈페이지 (health.iansan.net) -> 보건사업안내 -> 예방접종사업 /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snshealth.iansan.net) -> 진료 및 검진안내 -> 예방접종안내 에 접종가능한 종류와 접종 시기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관련 문의는 상록수 보건소 481-5892 단원보건소 481-3513 으로 문의해주세요.

Q 일반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안산시 청소행정과(☎031-481-3538)로 연락 주시면 접수한 날로 부터 2~3일 이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독/자/투/고

졸업 그리고 새로운 시작



졸업식을 마치고, 졸업앨범을 들여다본다.

고1 수련회, 수학여행, 체육대회 사진 속 우리들의 모습이 낯설다. 3년 동안 모습이 많이 바뀌어 누가 누구지 알아볼 수가 없다.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친구들과 나는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담임선생님께 드릴 앨범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날들을 추억했다.

수험생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눈치도 보고 스트레소도 많이 받았지만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다. 수능이 끝났을 때에는 그 후련함을 함께 할 친구들이 있어 즐겁고 행복했다.

봄날 화사한 벚꽃 아래에서 찍은 단체사진, 더위와 학업에 지쳐 책상에 앉드려 있던 우리를 포착한 장면이 고스란히 앨범에 담겼다. 가을에는 입시상담으로 교무실을 드나드느라 단풍으로 물든 풍경을 남기지 못했다. 수시 원서접수와 면접으로 정신없이 가을을 보내고 겨울이 되어 수능을 치렀다.

수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친구들은 울다 웃고, 또 울기를 반복했다. 우리는 합격과 불합격의 기쁨과 슬픔도 함

게 나누었다.

지난 12월 31일, 제야의 밤에는 친구와 함께 화랑유원지에서 타종식 행사에 참여해 2015년 새해를 맞았다. 제야의 종소리를 듣다보니 고3을 맞던 2014년 새해가 떠올랐다. 자동차 안 라디오에서 갑오년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우리 가족은 영동고속도로를 가로질러 태백산으로 향했다. 아이젠을 비롯해 겨울등산용품을 준비하는 엄마에게 “그 돈으로 스키장이나 갔으면...”하며 타박했던 것이 생각난다. 태백산 정기를 받아 수험생으로서 1년을 잘 보내라는 의미를 담은 산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다.

올미년 새해를 맞으며 나는 성인이 되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나는 갓 튀김 감자 튀김과 맥주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가족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다.

며칠 전에는 중학교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무렵 나는 성포동에서 고잔동으로 이사를 왔다. 버스가 끊길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나를 위해 안산

시 공공자전거인 페달로를 타고 함께 우리집까지 배웅을 해주었다. 자전거 위에서 맞는 바람은 차갑기보다 상쾌했다. 되돌아가는 친구들의 듩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도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성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졸업장을 나눠주며 우리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던 담임선생님은 졸업식 내내 울음을 머금고 계셨다. ‘스승의 은혜’를 부르며 케이크와 함께 우리의 추억이 담긴 선물을 드렸을 때 선생님은 왈칵 울음을 터트리셨다. 우리도 함께 울었다. 그리고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듯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댔다. 추억이 가득한 교실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드디어 교복을 벗었다. 또 다른 시작 앞에서 나는 봄나 무처럼 온몸이 간지럽다.

이재화 (단원구 광덕서로 43)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안산의 자랑

정문규미술관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설립자인 정문규 화백은 우리나라 화단의 대표적인 원로이시고



2009년 마련한 이 미술관은 대부도에 문화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



제2전시실에선 정 화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또, 1층엔 카페가 있어 차와 와인을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도 있지.



제1전시실에선 다양한 전시회와 연주회가 열리기도 한단다.



와~ 대부도의 종합예술공간이네요!



응? 벽에 있는 것들은 뭐죠?



하하~ 저건 레코드판이야. 옛방식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단다.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 153-9 (대부남동)
• 문의 : 032.881.2753 (<http://www.chungmuseum.org>)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포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순간이나 담아두고 싶은 사물을 향해 셔터를 누른 경험이 있으신가요?新安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포토아카데미에서는 사진에 관심 있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사진예술향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 **모집기간** : 2015. 2. 9(월) ~ 3. 31(화)
- **원서교부** :新安산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 **원서접수** : 직접 방문 또는 FAX(031-490-6010), 인터넷 접수
- **교육구성** : 사진의 발자취 및 카메라의 새로운 경향
렌즈·필름·필터·플래시 다루기 / 화면의 짜임새 / 디지털 이미지 흑백사진 만들기 / 포토폴리오 만들기 / 작품전시회
- **수업기간** : 2015. 4. 7 ~ 6. 30 (매주 화요일, 14:00~17:00) / 12주
- **모집인원** : 40명 (안산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 **수업료** : 무료 (안산시 전액 지원)
- **강사명** : 김철남 교수 (해양경찰청 사진교육원 전임교수, 과학기술부 사진반 강사)
- **문의** : ☎ 031-490-6186~9

2015년 안산농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안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농업인 및 귀농예정자, 농업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산농업 아카데미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교육기간** : 2015. 4. 7 ~ 11. 6
- **교육장소**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장 및 영농 현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3. 2 ~ 3. 20
※ 접수 방법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 **서류 심사 및 선발** : 2015. 3. 23 ~ 3. 26
- **합격자발표** : 2015. 3. 27(금) 15:00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문의**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 031-481-2568, 481-3764



2015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15. 1.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시·구청·동 주민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간** : 2015년 3월 11일 ~ 3월 31일
- **내용** : 2015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장소**
 - 시청(세정과), 구청(세무과), 각 동 주민센터 ⇒ 열람부 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 공동주택만 열람

□ 의견제출

- **기간** : 2015년 3월 11일 ~ 3월 31일
- **제출사항**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절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방법**
 - 인터넷(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 시청 세정과 (팩스 031-481-3220)
- **문의** : 시청 세정과 과표담당(☎ 031-481-2182, 2193~4)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서포터즈(아름누리) 모집 안내

중독관련 예방교육, 캠페인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거나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관심이 있는 안산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마감)
- **신청기간** : 3월 20일까지
- **교육일시** : 2015년 3월 23일 ~ 4월 24일 까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 3시30분)
- **장소** :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실
- **대상** : 중독관련예방교육, 캠페인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안산시 지역 주민
- **문의사항** : 031-411-8445~6 (담당자 황금석)

2015년 외식경영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2015년 외식경영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계속되는 영업부진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
무료 외식경영아카데미에 참여하셔서
명품 경영으로 한 걸음 나가 보세요!

교육생 모집

- **접수기간** : 2015. 3. 9. (월) ~ 3. 27. (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팩스 접수(031-481-6575)
- **모집인원** : 30명
- **자격** : 안산시 단원구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주 및 창업 예정자
※ 기존 상복구 및 단원구 외식사업 아카데미 수료자는 제외함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031-481-6233, 6231)
 -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원지부 (☎ 031-485-6963)
- **구비서류** : 교육신청서, 반영합판 사진 1매
-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원지부, 단원구청 홈페이지에 서류 서식 있음
- **선정방법** : 선착순 선정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카데미운영계획

- **교육기간** : 2015. 4. 7 ~ 2015. 6. 30. (12주간 매주 화요일 15:00~17:00)
- **교육기관** :新安산대학교 (단원구新安산대학교 137)
- **교육내용** : 고객만족서비스 및 경영기법 / 성공외식업체의 성공 노하우
세무교육 / 현장실습 등
- **교육비** : 무료